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5

한국전쟁 정전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 일본의 외교적 관여를 중심으로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Focusing on Japan's Diplomatic Involvement

나가사와 유코

이 연구는 새롭게 발굴한 일본 외무성 외교 문서(MOFA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휴전 교섭과 휴전 이후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관여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전쟁기 일본의 전쟁 특수와 후방 지원기지 기능이 잘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1950년대 당시 외무대신, 유엔 대사, 미국 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들의 활동과 외무성의 분석 보고 사료를 더 세밀히 조사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본 정부는 휴전을 둘러싼 정치회의에의 참여를 희망하며 대미외교를 추진한 한편, UNKRA 및 유엔통일부흥위원회(UNCURK)와의 조정회의를 통해 한국의 재건 지원에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당시 유엔 가입과 휴전 협정 참석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은 더욱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신헌법 재해석을 통해 물자 제공과 행정 조정을 수행하면서 '재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휴전체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UNKRA에 대한 외교사료 발굴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대일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의 주권 회복과 미일 관계를 축으로 한 냉전 하 한반도 분단과 재건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인접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어 관련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나가사와 유코는 2025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펠로우로, 고려대학교에서 한미일 외교사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대학교 부교수 (Project Associate Professor)를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교 국제화해연구센터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한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정책, 식민통치 청산에 관한 미일 외교협상에서 드러난 일본의 잔여주권 개념, 그리고 국제법의 적용과정과 인식 변화에 관한 외교사료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전문가회의 위원으로 한국문화유산의 환수 및 해외 활용과 교육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2023년 대만외교부 방문학자로 지낸 후, 2024년 7월 일본에서 약탈문화재 환수에 관한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2025년도에는 『한국 분단과 한국 주권-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가을 출판예정, 하버드-엔칭연구소출판조성)과 『역사인식 연구-독일 및 일본의 주변국과의 대화를 위하여』 (明石書店, 2025 가을 출판예정) 등, 총 세 권 책들이 출간될 예정이다.

Date & Time: May 20th, 2025.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